

보도시점 2026. 10. 28.(수) 11:00
< 10. 29.(목) 조간 >

배포시점 2026.10.28.(수)

공공분야 로봇 활용을 위한 4륜·4족 로봇 제품 설명회 개최

- 9개 정부부처·기관과 11개 로봇기업 참여, 공공현장 로봇 도입 관련 의견 협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서울 SETEC에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관계자, 로봇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공수요 연계 4륜·4족 로봇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AI로봇 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로봇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능을 높여 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AI로봇 1,700여 대를 공공분야에 우선 보급해, 초기시장을 여는 ‘첫 고객’ 역할을 할 계획이다. 부처들은 소관업무에 맞춰 연구 및 데이터 팩토리(산업부, 과기부), 순찰 및 경계(국방부, 경찰청), 농업현장 지원(농림부) 등에 로봇을 투입한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로봇기업에 다시 제공해 제품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는 첫 공공보급에 앞서 수요기관이 공공업무에 필요한 성능과 운용 요건을 로봇기업들과 세부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설명회에는 국방부, 육군본부, 소방청,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총 9개 수요기관과 레인보уро보틱스, 로보티즈, 현대차, 뉴빌리티 등 국내 주요 4륜·4족 로봇기업 11곳이 참여했다. 행사는 ▲로봇 기업별 제품 및 민간 활용 사례 설명(PT) ▲로봇 제품 전시 및 현장 시연 ▲수요기관과 로봇기업 간 1:1 상담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로봇 공공보급 사업이 단순한 초기 수요 창출을 넘어 국내 로봇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품기업과의 연계, 데이터 수집·활용, 하자보수 등을 포함한 로봇 공공보급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로보월드’에서 4륜·4족 로봇을 비롯해 휴머노이드, 돌봄로봇 등을 함께 선보여 수요기관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통상부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책임자	과 장	이동철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형건우 (044-203-4317)

□ (일시) 10. 28. (수) ~ 10. 29. (목), 10:00~15:30

□ (장소) SETEC 세미나실 2 및 소전시실 (서울)

□ (참석자) ① 국방부, 육군본부, 소방청, 경찰청 등 9개 기관

②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뉴빌리티 등 11개 로봇기업 등 총 90여명

□ (주요 내용)

- (로봇 제품 설명) 참여기업별로 로봇의 주요 기능·성능 및 활용 사례 소개
- (기관-기업 1:1 상담) 수요기관별 필요기능, 도입 규모 등을 중심으로 비공개 상담 진행

< 상세 일정 >

시간		구분	주요 내용
10:00~ 10:10	10'	개회 및 행사 안내	• 개회(인사말) • 행사 목적 및 프로그램 안내 • 공공수요 기관 및 기업 소개
10:10~ 11:50	100'	기업별 로봇 설명	• 기업별 로봇 제품 설명 및 활용 사례 소개
11:50~ 12:30	40'	오찬	• 오찬 및 참석자 네트워킹
12:30~ 13:30	60'	로봇 제품 현장 시연	• 기업별 로봇 제품 현장 시연 - 제품 작동방식 및 활용업무 설명
13:30~ 15:00	90'	수요 매칭 1:1 상담	• 공공수요 기관과 기업 1:1 매칭 상담 - 요구기능, 도입 규모·비용, 실증조건 등 협의
15:00~ 15:30	30'	수요조사서 작성 및 후속지원 안내	• 공공수요 기관별 로봇 도입 수요 조사 안내 - 상담 결과에 따른 수요조사서 작성